

# 순천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총력'

## 도교육청 공동 신청 계획...지역 자원연계 융합 교육 추진 지산학 지역 협력체 7일 출범 등 통합형 돌봄체계 구축

순천시가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실시해 6월 예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전남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자체·교육청·대학·산업체 등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공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인재 양성·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운영단계에서 기존 정책사업 연계·특별교부금으로 특구당 30-100억원 내외의 지원을 받는다.

순천형 교육발전특구 구상안은 지역 자원연계 공동교육 과정 마련으로 융합 교육을 추진한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정원도시 브랜드와 문화콘텐츠 선도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정원, 순천만 등 지역 자원을 기반한 생태·환경 특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가 최근 순천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순천시 제공>

이를 자율형공립고 등 고등학교의 공동교육 과정 및 융합 교육을 통해 지역의 특화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관련 교육을 육성해 K-디즈니 순천에 걸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 과정을 마련

하고자 한다. 또한 글로벌대학30-RISE 체계, 고등 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등 대학사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발굴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지역이 함께하는 통합형 돌

봄체계 구축·운영으로 질 높은 영유아·청소년 지역돌봄 생태계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출생률 저조에 따른 통합 돌봄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지역이 함께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공동교육 과정 등 유보통합 교육과 권역별 거점형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육발전특구 사업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모델 및 교육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지역 협력체를 구성한다.

순천시, 순천교육지원청, 관내 3개 대학·학교·기업체·교육단체로 구성된 지역협력체는 오는 7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

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협력체는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각 기업체 및 유관기관 간 소통, 교육발전 특구 운영 관리 등 협력을 지원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은 지역 청년의 미래 전략산업 분야 취업·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 실무협의회,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한 순천형 교육발전 모델을 발굴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응모할 예정이다. /순천=정기자



삼박LFT(주)가 지난달 30일 광양만권 울촌 1산단 내에 신규 컴파운딩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 삼박LFT, 울촌산단 내 컴파운딩 공장 착공

### 4천500억 투자...기능성 첨단소재 제조사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지난달 30일 롯데케미칼의 기능성 첨단 소재를 생산하는 자회사인 삼박엘에프티(삼박LFT)가 전남 광양만권 울촌 1산단 내에 신규 컴파운딩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서동

욱 전남도의회 의장, 노관규 순천시장, 김기홍 광양부시장, 서영배 광양시의장, 송상락 광양경제정장 및 이훈기 롯데화학군 총괄 대표와 이영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 한명진 삼박LFT 대표 등이 참석해 '글로벌 종합소재 생산 전문회사'로 도약하는 삼박LFT

T 주식회사의 착공식을 축하했다. 삼박LFT는 소재 사업 확대·생산기술 고도화를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울촌 1산단 2만6천871㎡에 총 4천500억원을 투자해 1단계 기능성 첨단소재 제조사업을 진행하는 협약을 순천시, 광양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맺어 2022년 5월 부지 구매를 완료했다. 이후 공장 착공을 위한 설계 등 제반

사항 등을 진행했으며,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착공식을 실시했다.

이훈기 롯데화학군 총괄대표는 "울촌산단에 2028년까지 1차로 약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 최대 규모인 연산 50만톤의 컴파운드 생산 공장을 구축해 글로벌 No.1 기능성 첨단소재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우수인재 채용을 늘리고 지역 경제에 기여함으로써 전남도와 함께 상생하며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삼박LFT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 /광양=양홍렬기자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구례군, 29일까지 신청서 제출

구례군은 1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만2천724필지 및 개별주택가격 9천909호를 4월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군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사가격알리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사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구례군은 이의 신청된 필지 및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는 오는 6월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6월27일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올해 구례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전년 대비 평균 상승률은 각 0.24%-0.21%"라며 "상승 폭은 적지만 적절한 가격이 책정됐는지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 "황실 역사 한 눈에"...보성 황실가 차도구원

### 내일부터 6월2일까지 대한제국 황실 차도구 120점 선봬

보성군이 대한민국 황실의 차 문화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한제국 황실가(家)의 차도구전(展)'을 개최한다.

1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6월2일까지 한국차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제4회 보성다향대축제 기념 특별전인 '대한제국 황실가(家)의 차도구전(展)'(Korean Imperial Family's Teaware)을 선보인다.

전시 개막행사는 5일 오전 11시 한국차박물관 로비에서 진행되며, 제4회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인 3일부터 7일까지 집중 운영에 축제 관광객 뿐만 아니라 박물관 방문객에게도 특별한 전시를 선봬 계획이다.

또한 고종황제의 증손인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장이 참석해 대한제국 황실가의 역사와 차 문화에 대한 생생

한 이야기를 전하는 등 풍부한 기획 행사도 마련했다.

이번 전시는 흥선대원군, 고종황제, 의친왕, 영친왕, 덕혜옹주, 이방자 여사, 이준 황손 등 대한제국 황실가에서 실제 사용했던 차 도구와 서화, 조선왕실가에서 500년간 내려오던 진전다례, 별다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주요 전시품은 흥선대원군 괴석묵란도, 윤현궁 추사서첩, 사동궁 은다구 일체 등 74건 120여점으로 윤현궁(흥선대원군 가문), 사동궁(의친왕 가문), 낙선재(영친왕, 덕혜옹주) 3곳에서 대어한 차문화 유물들이다. /보성=임병연기자

## 고흥군 '우리 쌀 소비 촉진' 아침밥 먹기 캠페인

###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아침밥의 중요성 홍보

고흥군은 1일 "지난달 30일 고흥여자중학교 교정 입구에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공영민 군수, 조상길 NH농협은행 고흥군지부장, 모락모락 봉사회, 한운호 고흥여자중학교 교장 및 관계자·학부모,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흥군은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등교 시간에 학생 200여명에게 우리 쌀로 만든 빵과 소시지 핫도그, 음료수를 나

눠주며 쌀의 가치와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렸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주역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식생활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최복환 기자



## 장흥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폐회

### 장애인 인권침해·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등 5건 처리

장흥군의회는 1일 "지난달 3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장흥군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한 지난달 23-24일 이틀간 진행된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에서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등 13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

를 직접 듣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왕윤재 장흥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장흥군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의회는 오는 6월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3회 계연도 결산과 군정질문을 위한 제9대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흥=노형록기자

## 담양군이장단, 담양경찰 허진호 과장에 감사패

### 범죄예방 환경 조성 공로

담양경찰서는 "최근 담양군 이장단에서 허진호 생활안전교통과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수여된 감사패는 지난 2년간 담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전한 담양 만들기 일환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CCTV 확충과 정성치안, 참여치안에 앞장선 허진호 과장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수여됐다.

정용오 담양군이장단 연합회장은 "군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던 뜨거운 열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품격 있는 치안 활동으로 모두의 귀감이 됐다"며 "담양군이장단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진호 생활안전교통과장은 "경찰에 입문한 후 34년 동안 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고심했다"며 "앞으로 2개월 남은 정년 퇴임 마지막 날까지 정성을 다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곡성군, 고향사랑기부 프리패스 '보답'

### 한 달간 제휴업체 최대 10%할인 서비스 제공

곡성군은 1일 "지난 한 해 동안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곡성사랑 프리패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곡성군은 곡성사랑 프리패스증을 제작해 기부자 1천817명 전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기부자들은 배송받은 프리패스증을 지참하고 5월 한 달간 곡성군 내 30개 제휴업체를 방문하면 5-10%의 할인 또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곡성성심강기차마을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패스가 있다. 이는 '제1회 곡성세계장미축제'기간인 5

월17일부터 28일까지 적용되며, 프리패스 소지자 중 매일 선착순 50명에게 2장의 무료 입장권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소지자는 전용 통로를 통해 빠르게 입장할 수 있어 보통 장미축제 기간 동안 긴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입장권은 기차마을 정문 또는 후문의 프리패스존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곡성읍, 오곡면, 옥과면 부근의 식당 10곳, 카페 17곳, 숙박업소 2곳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이번 이벤트에서 주목할 점은 모든 민간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곡성=김영필 기자